

보도	2026.5.26.(화) 석간	배포	2026.5.22.(금)		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담당부서	은행리스크감독국 건전경영팀	책임자	팀 장	김웅겸	(02-3145-8330)
		담당자	선 임	최영식	(02-3145-8334)

'26.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[잠정]

1. 개요

□ '26.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)은 **0.56%**로 전월말(0.62%) 대비 **0.06%p 하락** [전년 동월말(0.53%) 대비 **0.03%p 상승**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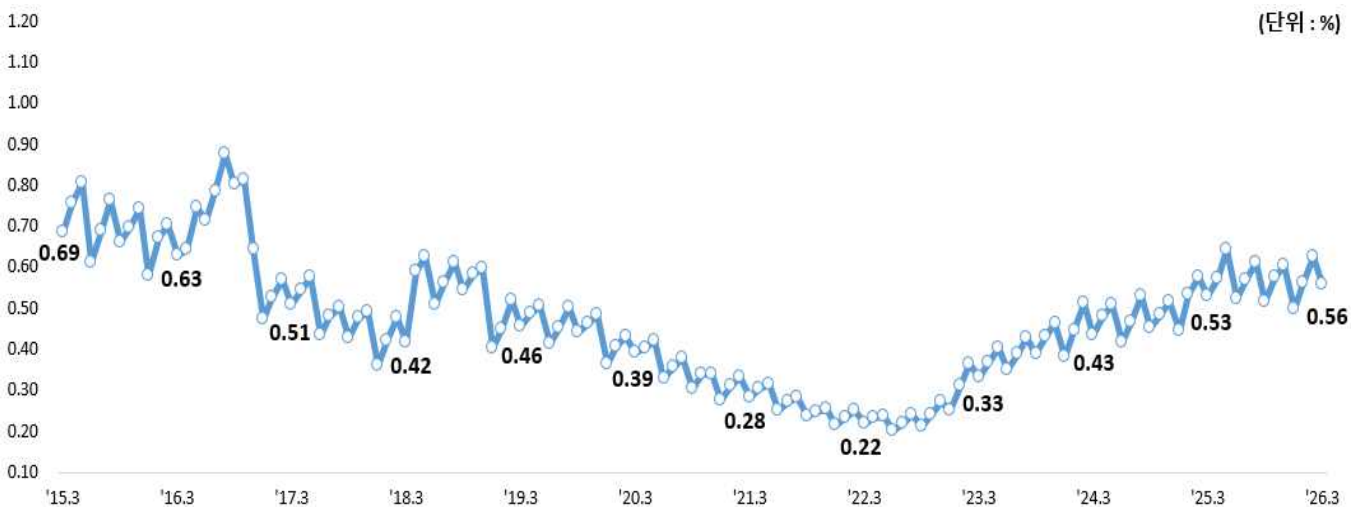
○ '26.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*(2.7조원)은 전월(3.0조원) 대비 **0.3조원 감소** 하였으며, 연체채권 정리규모(4.3조원)는 전월(1.3조원) 대비 **3.0조원 증가**

	('24.3월)	('25.3월)	('25.10월)	('25.11월)	('25.12월)	('26.1월)	('26.2월)	('26.3월)
* 신규 연체채권 규모(조원):	2.4	3.0	2.9	2.6	2.4	2.8	3.0	2.7
연체채권 정리규모(조원):	4.2	4.1	1.3	1.9	5.1	1.3	1.3	4.3
연체채권 증감규모(조원):	△1.8	△1.1	+1.6	+0.8	△2.7	+1.6	+1.7	△1.6

○ '26.3월중 신규연체율('26.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/'26.2월말 대출잔액)은 **0.11%**로 전월(0.12%) 대비 **0.01%p 하락** [전년 동월(0.12%) 대비 **0.01%p 하락**]

* 신규연체율(%): ('25.3) 0.12 → ('25.11) 0.11 → ('25.12) 0.10 → ('26.1) 0.11 → ('26.2) 0.12 → ('26.3) 0.11

원화대출 연체율 추이('15.3월~'26.3월)



※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,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

2. 부문별 현황

- (기업대출) '26.3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(0.68%)은 전월말(0.76%) 대비 0.08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62%) 대비 0.06%p 상승]
 - 대기기업대출 연체율(0.22%)은 전월말(0.19%) 대비 0.03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11%) 대비 0.11%p 상승]
 - 중소기업대출 연체율(0.81%)은 전월말(0.92%) 대비 0.11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76%) 대비 0.05%p 상승]
 - 중소기업 연체율(0.88%)은 전월말(1.02%) 대비 0.14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80%) 대비 0.08%p 상승]
 -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(0.71%)은 전월말(0.78%) 대비 0.07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71%)과 유사]
- (가계대출) 가계대출 연체율(0.40%)은 전월말(0.45%) 대비 0.05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41%) 대비 0.01%p 하락]
 - 주택담보대출 연체율(0.29%)은 전월말(0.31%) 대비 0.02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29%)과 유사]
 -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(신용대출 등)의 연체율(0.76%)은 전월말(0.90%) 대비 0.14%p 하락 [전년 동월말(0.79%) 대비 0.03%p 하락]

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구 분	연체율 시계열 ('13.12월~'26.3월)	'24.3말	'25.3말 (A)	'25.12말	'26.1말	'26.2말 (B)	'26.3말 (C)	증감	
								전년동월 (C-A)	전월 (C-B)
기업대출		0.48	0.62	0.59	0.67	0.76	0.68	+0.06	△0.08
대기업		0.11	0.11	0.12	0.13	0.19	0.22	+0.11	+0.03
중소기업		0.58	0.76	0.72	0.82	0.92	0.81	+0.05	△0.11
중소법인		0.61	0.80	0.78	0.89	1.02	0.88	+0.08	△0.14
개인사업자		0.54	0.71	0.63	0.71	0.78	0.71	+0.00	△0.07
가계대출		0.37	0.41	0.38	0.42	0.45	0.40	△0.01	△0.05
주택담보대출		0.25	0.29	0.27	0.29	0.31	0.29	+0.00	△0.02
가계신용대출등		0.73	0.79	0.75	0.84	0.90	0.76	△0.03	△0.14
원화대출계		0.43	0.53	0.50	0.56	0.62	0.56	+0.03	△0.06

*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

3.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

□ '26.3월말 연체율(0.56%)은 연체채권 정리규모 확대(+3.0조원) 등에 따라 전월말(0.62%) 대비 $\Delta 0.06\%p$ 하락하였으나,

- 3월 중 연체율 하락은 분기말 상매각 확대 효과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고,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상황

* 구분[% , %p]	'25.3	'25.4	'25.5	'25.6	'25.7	'25.8	'25.9	'25.10	'25.11	'25.12	'26.1	'26.2	'26.3
연체율	0.53	0.57	0.64	0.52	0.57	0.61	0.51	0.58	0.60	0.50	0.56	0.62	0.56
전월 변동	$\Delta 0.05$	+0.04	+0.07	$\Delta 0.12$	+0.05	+0.04	$\Delta 0.10$	+0.07	+0.02	$\Delta 0.10$	+0.06	+0.06	$\Delta 0.06$

※ 통상 분기말에는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폭으로 하락하고 익월 다시 상승하는 경향

□ 금감원은 은행이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,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,

-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부실로의 전이를 방지토록 유도할 예정